

10조원+α의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 산업부-금융위, 산업계 및 금융권과 함께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공동 개최
-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 통해 우수 AX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 추진 예정
- 산업기술기획평가원(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 - 산업은행(국민성장펀드 사무국)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덕원, 이하 금융위)는 12.4일 김정관 장관과 이덕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하였다.

<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2.4일(목) 15:00 ~ 16:30 /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덕원 금융위원장 등
 - (금융업권) 산업은행 회장,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은행장 및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등
 - (산업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비엠, 퓨리오사AI, 마카나락스,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 **주요 내용** : 제조업 AX전환을 위한 산업계 대표 프로젝트인 ‘M.AX얼라이언스’와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금융권 대표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간 이해제고, 협력강화

추진 배경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과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1,0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 중이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30년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수요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AI모델 개발, 로봇생산 등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분야 AI 전환계획을 발표하였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 투자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와 물류공정 AI로봇 도입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관련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개발과 양산에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업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1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AX 관련 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며, 분야별로 보면 휴머노이드 6.6조원, AI반도체 1.5조원, AI팩토리 1.3조원 등이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은 향후 국민성장펀드와 투자계획, 금융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직·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고의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연말 출범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 - 금융간 연계 강화

한편 산업부와 금융위는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위와 함께 M.AX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① 우선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기업수요를 중심으로 제조AX 관련 양질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할 계획이다.
- ② 또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생성·활용, 컴퓨팅, 실증 등의 인프라 사업을 신규 기획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③ 산업부는 금융위와 협의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연다.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상담회, 워크숍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아울러, 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정기적인 협력채널 운영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서로 균형을 맞추며 함께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원 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제반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간 협업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인 바,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도록 산업계와 금융권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생산적금융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산업계의 AI 전환과 제조업의 혁신적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미래 제조혁신의 성공을 위해 제조 AX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산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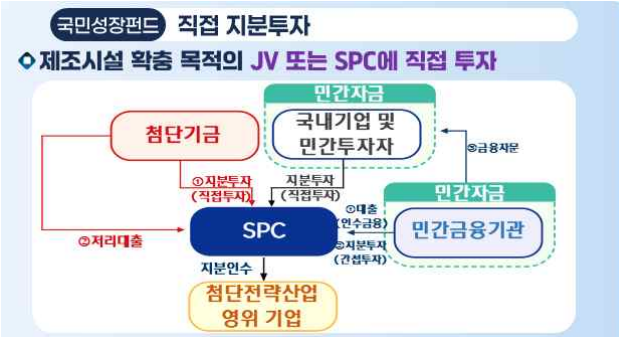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제조AI 확산 TF	책임자	팀 장	신용민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허유석 (044-203-4318)
			사무관	안용열 (044-203-431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예준 (02-2100-2521)



참고

국민성장펀드와 M.AX 프로젝트 연계방안

□ 직접투자(15조원)



* (자금용도) 제조시설 확충, 원천기술 보유기업 M&A 등을 위한 JV·SPC 직접투자

□ 간접투자(35조원)



* (자금용도) 민관 협력을 통하여 국민성장펀드 운용 성과를 국민과 공유

□ 초저리대출(50조원)



* (자금용도) 설비투자, R&D 투자 등, (대출조건) 국고채 수준 금리

□ 인프라 투·융자(50조원)



* (자금용도)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망,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